

'뇌사' 대학생·40대 가장, 장기 기증하고 떠나

전남대병원서 뇌사 판정...총 9명에 장기 기증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대학생과 40대 가장이 장기 기증을 통해 9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세상을 떠났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진식(19)씨는 지난 달 19일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남 뇌사 판정을 받았다. 이후 가족들의 동의로 받아 환자 5명에게 심장과 좌우 신장, 간장, 폐장 등을 기증했다.

강씨는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1학년으로 재학 중이었으며 졸업 후 소방관이 꿈이었다. 3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난 강씨는 편의점과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며 번 용돈으로 주변을 잘 챙겨 따르는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많았다.

강씨의 아버지는 "위낙 주변에 베풀기를 좋아하던 아들이다 보니 다른 사람 살리는 일인 장기 기증 또한 찬성했을 것이라 생각해 가족 모두 동의했다"며 "이식 받은 환자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장기 기증하고 떠난 강진식씨, 김경모씨. /전남대병원 제공

지난 달 17일엔 가장인 김경모(43)씨가 뇌내 출혈로 전남대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간장, 신장, 심장, 폐장을 기증했다.

생전 김씨는 8살 아들, 모친과 함께 살았다. 평일엔 배송기사 일을 하고 주말엔 모친과 함께 교회를 다닌 성실하고 자상한 가장이었다.

김씨의 누나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던 동생이었는데 갑자기 떠나게 돼 황망하다. 새 생명을 주고 떠난 만큼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호남·충청지역 최초로 신장 이식 수술 800례를 달성했다. 지난 1996년 뇌사자간 이식을 시작으로 간 이식 수술 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138례에 이른다. /김도기 기자

포토뉴스



GIST 박사과정 대학원생의 조모, 발전기금 1000만원 기부 광주과학기술원 (GIST)은 물리·광과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승재 학생의 조모 이은순 여사(85)가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동기 기자



현대제철 순천공장, 장애인 등반대회 후원금 전달식 현대제철 순천공장은 제19회 장애인 등반대회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순천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순천=조순의 기자



순천 향동, 장노년층 요리교실·마을 공유주방 운영 순천시 향동행정복지센터는 장노년층 1인 남성 가구의 건강을 책임질 나의 건강 돌봄 요리교실을 장안창작마을 공유부엌에서 수강생 12명을 대상으로 개강했다고 밝혔다. 또한 향동행정복지센터는 경로당 주방을 활용한 마을공유주방 사업을 4월 19일부터 9월까지 총 10회 운영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광양읍,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

광양시 광양읍은 오는 5월 10일까지 광양전통숯불구이축제 개선방안 공모를 주관하고 있다. 공모는 포스터 QR코드를 활용하거나 광양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광양읍 공고 2024-30호)에 게재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david17@korea.kr) 또는 우편(광양시 남등길6, 광양읍사무소 총무팀)으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실무 심사와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9명에게는 ▲최우수(1명) 50만원 ▲우수(2명) 30만원 ▲장려(3명) 20만원 ▲노력(3명) 10만원 등 총 2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광양=조순의 기자

광주시교육청, 고등학생 독서·토론·논술 교육과정 운영

비판적 사고·창의적 표현 향상위 단계별 수업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13일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표현을 키우기 위해 '고등학생 독서·토론·논술 교육과정' 1기 운영을 시작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생 독서·토론·논술 교육과정'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 진행되는 인문 논술 34시간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총 2기 운영이 예정돼 있다. 1기는 4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4시간씩 교육이 이뤄지며 수업비용은 시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강사는 시교육청에서 공모 선정한 토론·논술교육 아카데미 회원들과 '빛고을드림 토론·논술'의 공저자들

들로 구성됐다. 최근 독서토론과 대학에서 요구하는 논술 전형 경향을 반영한 독서 텍스트를 선정해, ▲논제 분석 ▲토론 실제 ▲에세이 작성 ▲진로 주제별 논술 및 발표 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논술 입문에서부터 분야별 실천 대입 논술까지 단계별 수업 진행을 위해 저자 직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수강 기회를 놓친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9월 초부터 시작되는 논술교육과정 제2기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독서 습관을 지니고, 다양한 독서 텍스트와 토론을 통한 비판적 사고 능력, 자신의 진로 탐색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두루 갖춘 인재로 바뀐다"고 밝혔다. /조순주 기자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ESG경영 실천사례 공모전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내달 10일까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4년 장기요양기관 ESG경영 실천사례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장기요양서비스 현장 ESG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각 장기요양기관의 ESG경영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모주제는 장기요양 현장의 ESG경영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로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공모전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포스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종 결과는 5월 24일 발표 할 예정이다. 윤정옥 본부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권형안 기자

광주시 CCTV센터 영상체험관 오픈

가상현실(VR) 체험...오늘부터 본격 운영



광주시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현실(VR) 영상체험관'을 운영한다. 광주시는 기존 2층에서 1층으로 확장 이전한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체험관을 16일부터 시민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체험관은 8세 이상 초등학교, 학부모, 기관·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CCTV의 종류와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안양농협·농가주부모임, 염색·반찬봉사

지역 내 원로 조합원·소외계층 건강·복지 증진



장흥 안양농협과 농가주부모임은 지난 12일 사랑의 염색봉사와 행복나눔 반찬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내 원로 조합원 및 소외계층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마련됐다. 염색봉사는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염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

전남도, 새내기 공무원 환경감시 역량강화

업무 소통창구 마련 등 전문성 향상 나서



전남도는 이틀간 환경감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환경 인·허가 및 환경감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에선 도, 시군 환경관리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인·허가 및 지도점검 사례를 공유하고 지역 화학사고 발생 시 조동대응 방법과 정부 합동평가 준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올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점검 방향과 정부합동평가 지표인 '배출업소 환경관리 개선도'에 대해 집중 토론했다. 환경 감시 공무원의 환경 인허가와 지도점검 업무에서 전문성 향상이 기대된다. 전남도는 앞으로 환경감시 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내기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직접 소통하고 지원할 상담창구(대화방)를 운영하기로 했다. /조순의 기자